

Cover Story

도시재생의 의의와
실천과제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2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 Interview

연구/원/소/식



KDI원장 및 연구진 인천방문
시찰 및 간담회 실시
2008년 2월 19일 수요일 본
원은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재정투자...

인천/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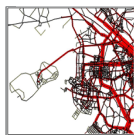


이슬람 문화 교류의 장, 중동
문화원
이슬람하면 편견을 가지고 이
교도적인 느낌을 떠올리겠지
만 실제로는 그렇지...



인천아프리에의 열여덟 번
째 만남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
공적 추진은 지역간 편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갈등관계
를...

시/정/연구



인천시 교통수요변화추
이분석 및 정책활용방안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 교
통정책이 어...

도/시/동/향



포트랜드의 도시 성장관
리 정책
포트랜드 대도시권은 성
장관리정책을 ...

신/간/소/개



건설교통통계연보 2007
우리나라 건설교통분야
의 주요한 통계...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도시재생정책의 의미

그 동안 인천의 도시발전과정은 1950년대부터 국가 중심항인 인천항을 중심으로 수출공단 및 지방공단의 조성과 함께 국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도시로 발전되면서 내항과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중심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손해균 도시재생국장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공업기능 쇠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주변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구, 동구 등 기존 도심권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쇠퇴되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자립경제기반의 부재 등 수도권의 관문도시, 위성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천은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의 유치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로써 4만불 시대를 이끌어가는 무한한 성장 동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질적 양적 성장을 통해 규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도시내부에서는 신·구도심의 큰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우려를 안게 되었으며, 시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인천 기성시가지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매우 시급한 정책사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도심에 대한 전략적 집중 개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인천시 전체에 파급시킴으로써 지역적 편차를 줄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 및 특징은

「도시재생사업」은 지구내에서 주거환경정비, 기반시설설치, 도시경관 등 모든 사업이 연계성을 갖고 일관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 도심내에서 업무, 유통, 교육, 문화, 예술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입체도시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재원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이며, 기존의 주택조합개발방식이나 소규모 민간개발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서 복합입체도시 건설이라는 전략적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 및 사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선 투자를 위주로 교통의 결절점이나 역세권 등을 거점으로 선정하여 시주도하에 집중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생”이라 함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불용제품을 재활용하여 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듯이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여 신흥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심을 재활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1거점(내항거점), 2축(경인고속도로축, 경인전철축)을 근간으로 가정오거리, 가좌IC주변, 제물포역주변, 송의운동장, 인천역주변 등 12개 지역에 대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추진 4차년도로서 사업이 점차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체계와 연계하여 가정오거리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최첨단 입체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올해안으로 도시명칭 선정과 보상 및 이주대책을 완료하고 내년 4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북부권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경제자유구역 주 진입로 건설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작년12월에 2,4공구에 대한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송의 운동장의 기능 재배치를 위한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올 상반기중에 기존운동장에 대한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2010년 축구전용경기장을 준공하고 2013년까지 주상복합건물 및 상업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며,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사업"은 2019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이전까지 1단계(월미순환)를 개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물론 지역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가좌IC주변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도시재생사업」, 「제물포역세권도시재생사업」, 「도화구역도시재생사업」, 「인천·동인천역도시재생사업」, 「각국공원 창조적복원사업」 등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은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지역의 보상 및 이주대책, 제도상의 복잡한 절차이행, 개발에 따른 각종 민원 등 해결해야 할 어려움도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 및 사업지구 내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안과 원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법 등을 모색하고 관계법령 개정건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를 통해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간 편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갈등관계를 벗어난 인천시민의 대통합을 유도하고 도시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은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도시로,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수도권을 흡입할 수 있는 발전된 도시로, 인천에 투자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간 편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갈등관계를 벗어난 인천시민의 대통합을 유도하고 도시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은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도시로,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수도권을 흡입할 수 있는 발전된 도시로, 인천에 투자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2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원/소/식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민공청회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2시

2008년 2월 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민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개 회 식 (14:00~14:15) ○ 경과보고 (14:15~14:20) ○ 발 표 (14:20~14:50) - 발표자 : 문경복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장) ○ 휴 식 (14:50~15:00) ○ 토 론(15:00~16:00) - 사회자 :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장) - 토론자 : 최만용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계기석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편석우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최정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

2008년도 자체연구과제 착수보고회 추진



2008년 2월 12일~15일

2008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본원은 2008년도에 연구할 자체연구과제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 - '인천광역시 글로벌 행정강화 방안'의 9건, 도시계획·교통연구실 - '자전거도로 이용환경 개선'의 8건, 동북아·물류연구실 - '남·북·중 3자 경제관계 변화에 있어서 인천의 기회와 역할'의 3건, 도시환경연구실 -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 수질관리방안'의 3건으로 총 28건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회 추진



2008년 2월 20일 수요일, 22일 금요일

본원은 2008년 2월 20일 수요일과 22일 금요일에 걸쳐 2008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인 도시경영연구실-'인천광역시 청소년 보호육성 기본방향'의 7건, 도시환경연구실-'광역시단위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의 1건, 동북아·물류연구실-'인천시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 총 11건의 착수보고회가 실시되었습니다.

KDI원장 및 연구진 인천방문 시찰 및 간담회실시



2008년 2월 19일 수요일

2008년 2월 19일 수요일 본원은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재정 투자 평가, 민간투자 지원, 재정사업성과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KDI원장 및 연구진에게 관내 주요사업 현장시찰을 제공하고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천지역 대규모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

였습니다.

인/천/나/들/이

이슬람 문화 교류의 장, 중동문화원

도시환경연구실 박원석 초빙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이슬람하면 편견을 가지고 이교도적인 느낌을 떠올리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신인 “알라(Allah)”는 한국의 하나님, 영어의 ‘God’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역시 유일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배척하였다. 결국 이슬람에서의 신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유일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슬람교인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며, 무슬림은 하루 5번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에 무릎을 꿇고 카바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예배(Salat)를 한다. 이러한 예배 시간에는 예배자가 알라(하나님)와 교통하는 직접적 교류의 순간이므로, 알라와 예배자 사이에는 어떤 중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슬람은 세계문명발상지인 중동을 대표하는 문화이며, 근대 의학, 수학, 천문학 등 많은 과학 분야의 모태가 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해 2007년 10월 22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 중동·이슬람 문화 교류원”이 개관되었다. 인천시청 정문에서 분수대 왼쪽 편 대흥빌딩 3층에 자리하고 있어, 시민들과 이슬람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

중동문화원 입구에 들어서면 중동의 상징인 낙타와 모래로 꾸며진 중앙홀과 우측에는 이슬람문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관 통로 역시 중동의 느낌을 전하고 있다.

중동문화원 내부에는 특별전시관, 중동 역사관, 중동 문화관, 아라비아 사막 전시관, 자료실, 비즈니스센터 및 강의실로 구성되어져 있다. 특별전시관은 3~4개월마다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역사관과 문화관, 전시관에서는 중동에 대한 많은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중앙홀 좌측에 위치한 도서관에서는 각종 서적과 잡지, 그리고 무료 인터넷(한국, 영어, 아랍어 가능)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별전시관에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신비”를 전시하고 있어 파라오라 미라의 제작과정, 그리고 피라미드내부의 석실에 대한 비밀이 전시되어 신비한 이집트의 문화를 볼 수 있다. 이슬람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은 태널을 읽어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특별전시관을 지나 중동전시관 내부에는 이슬람 문화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쿠란(성경)이 눈길을 끈다. 특이한 모양의 접시와 촛대는 그들 문화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기술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찬란하게 번성했던 이슬람의 문화를 체험하다보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친근감이 느껴진다.

그 한 예로 삼국유사에 서기 880년 경 동해에 나타난 처용의 기록을 보면 눈이 크고 코가 오뎅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 서역의 무슬림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한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신라의 개운포까지 진출했던 해상 세력 중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다면, 아랍 혹은 페르시아 상인일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각각의 전시관에는 옷, 책, 실내 장식품, 장신구, 화장 도구, 사막에서 쓰는 천막과 무기 등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 돼 있다.

비록 작은 공간에 마련된 중동문화원이지만, 그 안은 중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슬람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품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지금의 문화원은 2012년에 청라지구 제5호 근린공원 내 토지공사 홍보관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원을 건립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신없이 이슬람문화에 심취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관람을 마친 후 중앙홀의 작은 카페테리아에서 낙타안장으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아 마시는 차 한잔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흥분감을 가라앉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화창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중동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람할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 중동문화원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슬람문화의 화려함과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금껏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무슬림과 중동문화에 대한 편견은 없애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다.

개관시간 : 10시~18시(매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

홈페이지 : <http://www.arabculture.or.kr>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권, 호남권, 제주특별자치도

이슬람하면 편견을 가지고 이교도적인 느낌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신인 “알라(Allah)”는 한국의 하나님, 영어의 ‘God’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역시 유일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배척하였다. 결국 이슬람에서의 신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유일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시/정/연구

인천시 교통수요변화추이분석 및 정책활용방안

도시계획·교통연구실 김종형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시 교통수요변화추이분석 및 정책활용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구조와 교통체계간의 부조화는 도시문제를 유발시켜 도시운영에 개선목표가 되어왔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장래 교통수요를 현재시점에서 예측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지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됨.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 교통정책이 어떠한 함수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장래교통정책과 도시개발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떠한 요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연구의 방법

인천시의 10개 군·구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규정하고, 교통4단계 수요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과 2006년(1차 전수화안)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수요 변화를 파악함. 또한 교통수요분석결과와 동기간의 사회·경제지표 및 도시기반시설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본 연구에서 이용된 분석 척도는 난개발 지표(UDI; Unplanned Development Index), 교통측면의 인천시 자족율(Incheon Independent Index Rate), 서울경기의존율(Seoul-Gyeonggi Dependent Index Rate)분석, VKT(Vehicle KilometerTraveled), VHT(Vehicle Hour Traveled) 등이 있음.

통행발생단계 교통수요변화 분석

난개발지표(UDI)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인천시 전체의 난개발 지표는 0.2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8개 군·구에서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난개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수구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도로율의 증가가 감소되어 교통측면에서 난개발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됨.

통행분포단계 교통수요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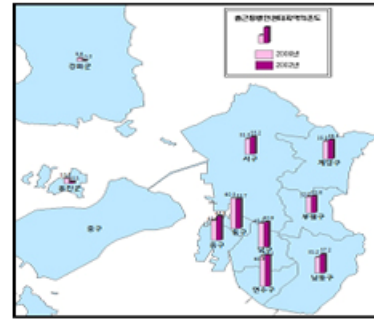
2002년, 2006년의 총목적통행분포에 관한 분석 결과, 인천시의 서울경기의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자족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크도 판단됨.

출근목적통행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에 대한 의존율은 총목적통행 의존율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2002년보다 2006년에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목적통행 인천시 자족율



출근목적통행 서울경기 의존율

수단선택단계 교통수요변화 분석

각 년도의 수단분담 통행을 5가지(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기타)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음. 2006년은 2002년에 비해 총수단통행량이 9.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승용차 분담율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광역도로교통망 개설과 간선도로망의 확충으로 2002년에 비해 2006년에는 1.7%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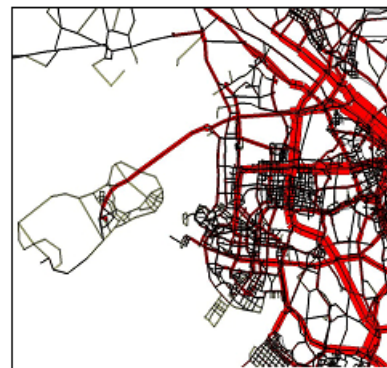
통행배분단계 교통수요변화 분석

VKT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2002년은 173,265,456대·km이고, 2006년은 209,969,626대·km로 약21.2% 증가하였음. VHT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2002년은 37,500,392대·시이며, 2006년은 42,460,535대·시로 약 13.2%증가하였음.

통행배분 결과 VKT의 증가원인은 교통량의 증가와 더불어 승용차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음. 한편, VHT의 증가는 2002년의 통행배분이 실제보다 좋은 수준에서 분석되었고, O/D가 2002년에 비해 2006년은 15.3%나 증가되었기 때문임.



2002년 통행배분



2006년 통행배분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도권 통행패턴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압축개발(compact city)을 실시하여 내부통행을 증가시키고, 혼잡을 완화시키는 방법과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 승용차 이용을 억제 시키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고, 정책적으로 현재 캠페인 중인 승용차 자율이용제의 육성 및 주차 단속의 강화를 제안하였음.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 교통정책이 어떠한 함수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장래교통정책과 도시개발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떠한 요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시/정/연구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방안 연구

도시계획·교통연구실 조상운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향후 인천의 많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생활권단위의 정비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생활권단위 정비방식을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행 정비사업에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적·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조사, 분석하여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요약

최근 인천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총량이나 기반시설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채 운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현재의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부정형 도로가 양산되고, 생활권내 전반적 도로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한 구역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생활권 차원의 시설이용 편의성 및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결국, 최근 들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인천의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종전 서울의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인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서울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서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중구, 동구, 남구 일대에 재개발·재건축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별 구역별로 민간주도형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결과,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라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결국 공공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음.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축법 등 관련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

서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정책건의

생활권단위 정비계획 수립

- 중구, 동구, 남구 일대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산재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별 구역별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 공공이 우선적으로 생활권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개별구역별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나타날 문제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구역별 합리적 분담 기준 마련

-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재개발, 재건축 등 다른 사업과 다수의 시행자가 존재할 수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 계획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정·협의를 어려워질 수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현재의 단순히 면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단위내 개별 구역별로 특성에 따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발생정도, 용도지역의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적극 지원

-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대한 시행자 부담 원칙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어 국가 또는 공공의 지원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구단위 뿐만 아니라 지구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진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은 종전의 재개발·재건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고 새로운 개념의 정비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함.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반시설 확보비율의 명시

-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자칫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보다는 사업성에 유리한 쪽으로 법적기준의 최소한도만 만족시키는 종전의 정비사업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도시별·지역별로 사업여건 및 특성에 따라 달성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율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동안 재개발 등에서 나타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생활권단위 촉진사업시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 주민, 공공이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기반시설의 규모 및 비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 인천의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용적률이 타도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효과가 저감될 우려가 발생함. 따라서, 주변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용적률의 산정을 통해 적절한 계획용적률을 설정하도록 하여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도입된 평균층수제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높이제한의 완화뿐만 아니라 용적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비율(5%)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음. 따라서, 평균층수제가 적용가능한 지역의 요건 또는 평균층수의 하한 및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해야 할 것임.
- 정비사업시 인센티브 제도는 부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시설 제공 등 기능제고와 쾌적성 증진을 위한 별도의 공공적 기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인센티브 부여대상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의 기능,

위계, 종류, 위치 등 세부 항목별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공면적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획일적으로 부여 하고 있음.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적 기여도의 종류를 구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인천의 많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생활권단위의 정비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생활권단위 정비방식을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현행 정비사업에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적·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조사, 분석하여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음.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포트랜드(Portland)는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주의 바로 밑에 있는 오레곤주의 항구도시이다. 매년 도시의 삶의 질을 발표하는 머서(Mercer)에 따르면 포트랜드는 2006년 조사결과 전세계 43위, 미국내 6위를 기록한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포트랜드는 미국 오레곤주의 중심도시이지만, 변화하지도 그렇다고 지루하지도 않은 아담하고 깨끗한 도시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포트랜드가 유명한 것은 콜롬비아 강에 있는 아름다운 폭포들과, 화산 폭발로 봉우리의 20%가 날아가 버렸다는 마운트헬렌과, 해안도로를 타고 따라가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들이다. 이밖에 이웃 도시 사람들이 포트랜드를 부러워하는 이유로 오레곤주는 판매세를 붙지 않아 쇼핑이 즐거운 점을 들고 있다.



포트랜드 대도시권은 포트랜드를 둘러싼 지역 면적 376km², 인구 138만인으로 오레곤 주 전체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포트랜드의 중점 산업은 주로 하이테크 제조업, 교통장비, 소매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다양하다.

포트랜드는 지난 50년간 도시의 성장과 쇠퇴, 재생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포트랜드 중심지역은 1950~6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개발을 경험하였고, 1960~70년대 쇠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도시 쇠퇴문제는 도시의 교외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소득이 많은 계층이 교외지역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도시 중심지역이 활력을 잃고, 시정부는 공간적으로 확대된 교외지역 주거지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1972년 포트랜드도심부계획(Portland's Downtown Plan)을 만들어 도시성장경계선(Urban Growth Boundary)을 지정하였다. 지정된 도시성장경계선 안에서만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반면, 그 외 경계선 밖 지역은 도시형 개발이 금지되고 농업, 임업, 저밀도 주택개발만으로 한정하여 보호하였다.

도시성장경계선의 설정 결과로 도시의 외연적인 확장이 멈추게 되었다. 포틀랜드 도시성장경계선의 중요한 의의는 정부 간 협력 또는 광역정부 메트로(Metro)의 설립과 이를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이다.



광역정부 메트로(Metro)는 행정구역을 인구가 거의 비슷하도록 7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 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광역정부의 대표를 전체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하고, 의회는 조례제정, 예산심사 등 메트로의 기본적인 정책결정의 책임을 가지는 구조이다. 메트로는 종전 시와 카운티의 체제에서는 어려웠던 광역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집행하는 장점이 있다.

메트로의 주요역할은 ① 지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② 도시계획과 연계된 광역교통계획 수립, ③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포트랜드 대도시권은 성장관리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종합계획을 실현하고, 정부가 토지개발규제를 중심으로 자연보호,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주택, 교통, 경제개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종합적인 도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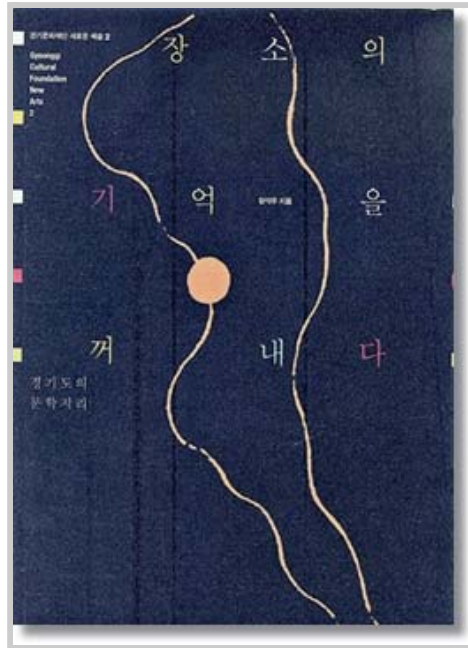
성장관리정책 시행 결과 포트랜드시는 오레곤주의 행정의 중심지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대중교통, 생활환경이 편리하여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서 평가받고 있다.



포트랜드 대도시권은 성장관리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종합계획을 실현하고, 정부가 토지개발규제를 중심으로 자연보호,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주택, 교통, 경제개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종합적인 도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장관리정책 시행 결과 포트랜드시는 오레곤주의 행정의 중심지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대중교통, 생활환경이 편리하여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서 평가받고 있다.

신/간/소/개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경기문화재단

문학지리학적으로 경기도를 살펴보고자 경기문화재단이 간행한 단행본. 장소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내력과 운명 후, 내력이 있는 주요 지역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중 “서해로 나가는 관문”이라는 소제목으로 인천 및 강화지역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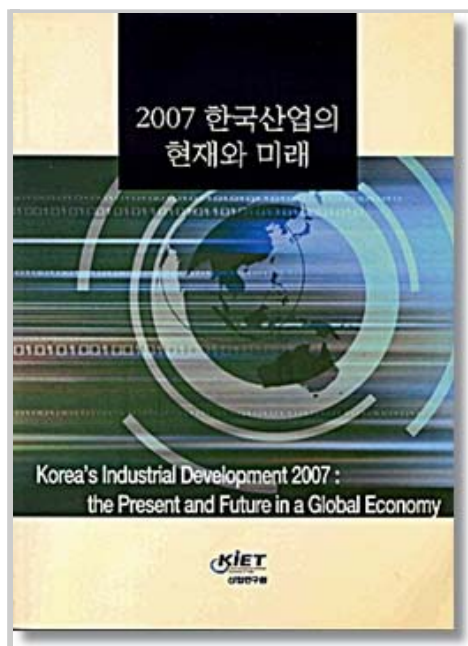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8년 2월호 ▼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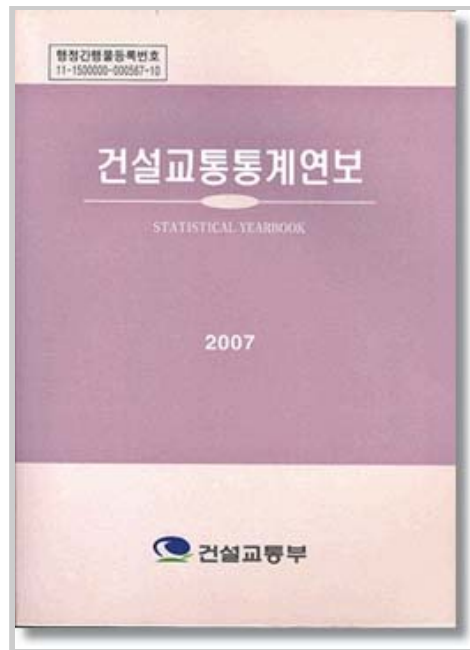
▶ 웹진 구독신청

2007 한국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산업통계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된 보고서. 총괄부분에서는 국내 산업의 위상 및 생산임지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군별 글로벌전략을 제시 하고 있으며, 자동차·조선·일반기계·섬유·의류·철강 등 12개산업 부문에 걸쳐 각 산업의 위상 및 특성, 경쟁자 분석, 산업성과 등을 수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우리나라 건설교통분야의 주요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조사와 소속단체의 보고 및 유관기관의 통계자료 중 주요한 자료를 편집하여 수록하였으며 2006년 12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표에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근 10여년간의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도 가능하다.